

4차 산업혁명시대 새 도약...광융합기술 패러다임 대전환

광산업진흥회, 올해 국비 44억·시비 32억 확보 신규 R&D 기획·수출 판로 개척 등 지원 확대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정철동, 이하 진흥회)가 광융합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올해 지원 규모와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12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2022년도 신년 설계'에 따르면 위촉된 광산업 경영환경을 회복하고자 정부 예산 44억원, 광주시 예산 32억 원을 확보하며 관련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진흥회는 ▲산학연 소통 정례화 통한 광융합산업 생태계 고도화 ▲신규 대형 R&D 과제 기획 지원 ▲전국 광융합산업 분야 해외시장진출 지원 ▲맞춤형 취업연계 및 미스매치 해소 등을 신년 목표로 내세웠다.

진흥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며 기업 활동에 제한이 많이 생기고 경기가 위축됐다고 진단하며, 국내 유일의 광산업전담기관으로서 관련 기업의 문제해결과 신제품 개발 및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진흥회는 광융합기술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핵심 융합기술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지원,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진흥회는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과의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AI와 공통신의 접목 기술, 광의료기기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으로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소통 구조로 광융합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진흥회는 기업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생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 창출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광융합 분야 발굴을 위해 신규 대형 R&D 과제 기획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 진흥회는 기업지원과 관련해 정부 예산 44억원과 광주시 예산 3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내 R&D(연구개발) 과제들은 내수 규모의 한계로 기술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산업계로부터 'R&D를 위한 R&D'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흥회는 기존의 과제기획에서 탈피해, 기업 중심의 상용화 가능 신제품 개발을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올해 위촉된 광산업 경영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예산 44억원, 광주시 예산 32억 원을 확보하며 관련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제광융합전시회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모습.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지원하고 비즈니스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업 제감형 대형 신규 국비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24시간 온라인 수출 상담장 운영계획을 재정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진흥회는 또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광융합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 구성 및 무역촉진단 파견, 온·오프라인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운영한다. 기업의 해외마케팅 판로개척을 위해 진흥회는 지난해 3월 공고를 통해 선정된 국내 유망기업들과 함께 해외 유망전시회에서 공동관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SPIE Photonics West 2022', 'OFC', 'ECOC', 'Light&Building' 등 광융합전반, 광의료바이

오, 광융합조명, 광통신 분야의 8개 국제 전시회에 오프라인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66개국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광의료바이오 전시회 'Arab Health 2022'에 광주지역 8개사를 포함한 국내 유망기업 13개사가 참가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과 변이종의 유행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국내 및 해외 방역 수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관련 기업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 맞춤형 마케팅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도 상설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에 직접 나가지 못해 절감되는 예산은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 시험평가, 국내외 인증, 해외 물류비 지원, 국내외 시범설치 등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국제광융합산업전사회는 국내 50개사, 온·오프라인 해외바이어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수출상담회를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광융합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관을 마련하며, 미래 유망기술을 조망하기 위한 국제 유명 석학 초청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윤리 진흥회는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 맞춤형 취업연계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선제패키지지원, NCS 활용 기업 컨설팅, 재직자 역량 강화 온라인 OJT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한다. 또한 단순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상시구인구직 인력풀을 마련해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진흥회는 그동안 산업부로부터 광융합 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업에게 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기틀을 마련했다.

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총 3,198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진행, Photonics West, OFC 등 국제 전시회에서 총 406만 달러(약 48억원) 상당의 계약 체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운진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피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끊임 없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진흥회도 광융합산업 전담기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광융합+AI 등 제2의 광융합 산업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의 해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경제지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2022년 전남농협 경제사업 추진결의대회'를 가졌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농협, 농축산물 유통변화 선도 결의

농업경영비 절감·노동력 확보·스마트농업 확대 추진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2일 본부 대강당에서 경제지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 2022년 전남농협 경제사업 추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지역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판매 4조2,000억원, 양곡판매 1조1,000억원, 연합사업 판매 4,500억원, 로컬푸드

매출 1,000억원, 가축시장 디지털화 등 각 사업별 세부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유통 대변화를 선도하기로 결의했다.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실익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플랫폼 보급으로 농업경영비 절감과 인력 최소화 ▲발농업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와 발농

업 특화 농기계 개발·보급 확대 ▲벼 새청무 품종 재배확대와 신품종인 강대찬 등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노지채소 출하 조절시설 확충을 통한 채소수급안정사업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식량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농업 실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에 대비, 지역 농축산물을 담배팩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진행해 지역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수급불안,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남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광주 취업자 줄고 비임금·일용직 늘어

호남통계청 고용동향...전남은 10년래 '최고'

지난해 전국 취업자수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광주지역 고용동향은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했다. 반면 전남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취업자수를 기록했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취업자는 74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0.4%)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2,000명)부터 시작된 감소세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반면 전남 취업자는 98만5,000명으로 나타내며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 2020년 취업자수는 97만4,000명으로 전년과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용시장이 회복됨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58.2%로 전년

비 0.5%p, 실업률은 3.6%로 전년 대비 0.3%p 하락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4.6%로 전년 대비 0.7%p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2.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광주지역 광공업과 제조업이 각각 10만명으로 7,000명씩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1만2,000명으로 3,000명(-20.5%p)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광공업과 제조업 근로자가 각각 9만7,000명으로 1만명(-9.4%p)씩 줄었다. 농림어업 근로자가 1만6,000명(8.0%p) 늘어난 2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임금근로자는 56만7,000명

으로 4,000명(-0.6%p)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0.5%p) 증가했다. 상용근로자(40만6,000명)와 임시근로자(12만5,000명) 각각 4,000명, 5,000명씩 줄었으며, 일용근로자는 3만6,000명으로 5,000명(16.0%p) 늘었다.

전남지역 임금근로자는 59만6,000명으로 7,000명(-1.1%p)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는 38만9,000명으로 1만7,000명(4.7%p)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000명 줄어든 38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17만3,000명으로 보합, 일용근로자는 3만7,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김혜린 기자

공후식 건설협회 전남도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당선

직접무기명 투표 6명 선출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공후식 회장(동림종합건설 ㈜대표이사·사진)이 지난 11일 서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선거(제122회 총회)에서 광주·전남·전북 선거구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58년 만에 직접 무기명 투표를 의해 서울 2명, 인천·경기 1명, 부산·울산·경남·제주 1명, 광주·전남·전북 1명 등 총 6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공후식 회장은 "조합 운영위원 소임의 기회를 주신 광주·전남·전북 2,270여 조합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며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조합원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



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임기동안 조합원 권익보호는 물론 58년의 조합 혁신에 지금까지의 경험과 열정을 바

치라는 소명으로 알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집행 감독 ▲사업계획 기타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비롯한 예·결산 ▲이사장 상임감사의 추천 및 전무이사 임면인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민수 기자

전통시장 26만4천원·마트 36만3천원선

aT, '설 차례상' 비용 조사

올해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지난해 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일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26만4,442원, 대형유통업체 36만3,511원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풍년을 맞아 생산량이 증가한 쌀과 산지 재고량이 풍부한 사과, 배 등의 과일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늦장마로 수확기 피해를 입은 대추, 도라지 등의 임산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수요가 증가한

소고기는 가격이 상승했다.

배(5개)는 전통시장에서 1만7,565원으로 지난해(2만1,661원)보다 -18.9%(-4,096원), 대형마트에서 1만7,006원으로 지난해(2만4,309원)보다 -30.0%(-7,703원) 내렸다. 반면 달걀(10개) 가격은 전통시장 2,124원, 대형마트 2,112원으로 지난해보다 -3.2% 내렸다. 소고기(양지·300g)도 전통시장 1만4,340원, 대형마트 2만4,544원으로 전년 대비 8.5%(1,125원), 7.9%(1,792원) 올랐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등 10대 품목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공급한다. aT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더 설 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애린 기자

TKG그룹 휴켄스 대표, 김우찬씨 내정

TKG그룹 휴켄스는 신임 대표이사에 2차전지 소재 전문 생산 회사인 STM의 김우찬 대표(59·사진)를 내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표는 부산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성SDI에서 헥사기 법인장과 중대형센터장 전무 등을 역임했다. 휴켄스 관계자는 "신임 김 대표는 사업 운영 역량과 경험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통찰력을 갖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휴켄스의 체질 변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